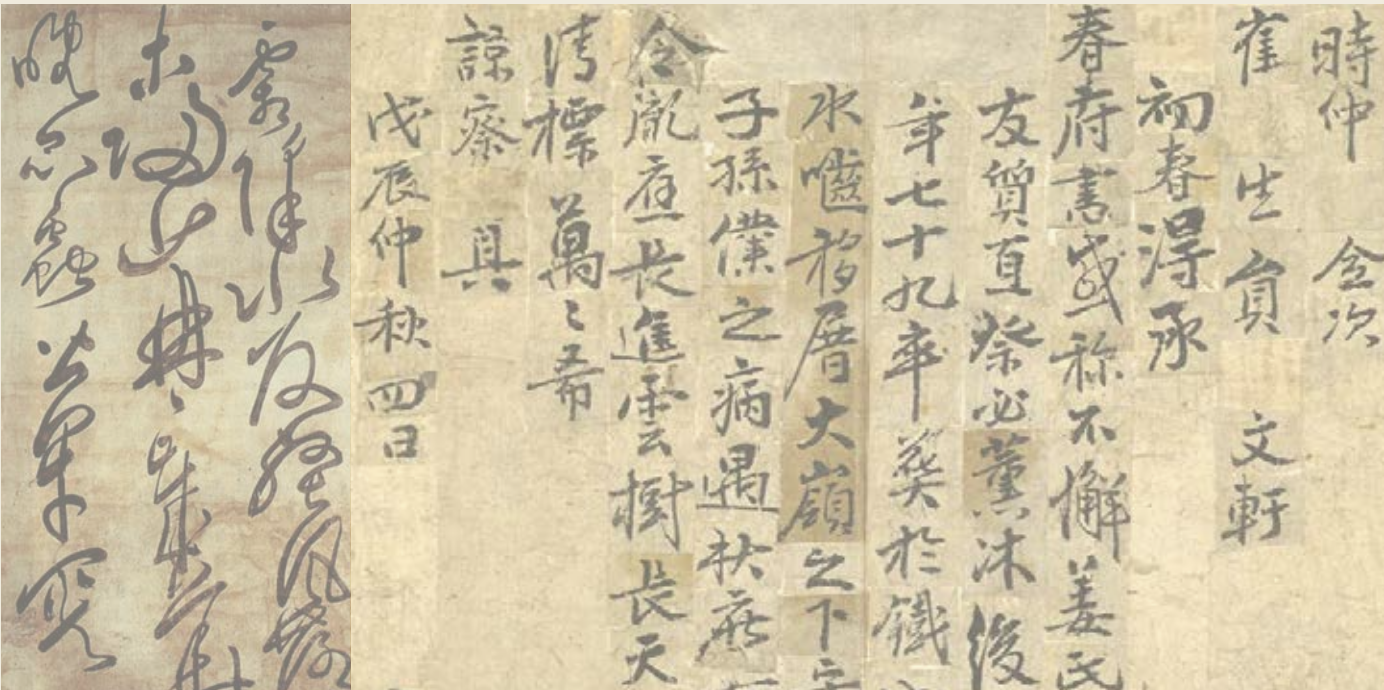


포천향교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명필을 찾아서



학교

학년

반

이름:

■ 목 차

- 옛날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1
- 옛날의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 5
- 양사언은 누구일까? 7
- 옛글씨 15
- 선비들이 좋아하는 사군자 21
- 선비들의 벗 문방사우 23
- 옛날의 인쇄술 25
- 포천시 소개 27
- 포천향교 소개 29



옛날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고려가 멸망한 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 정치 이념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어요. 특히 성균관 향교, 사학 등 교육기관을 세워 뛰어난 유학자와 관리들을 얻고자 힘썼지요. 참다운 인재들을 길러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답니다.

조선의 초등학교, 서당

서당은 지금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민간의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학생들은 주로 7~8살이 되면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천자문>으로 한자를 익히고 <명심보감>, <동몽선습> 등으로 유학의 기초를 공부했대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훈장’이라고 했는데 주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마을에서 학식이 풍부한 선비들이 훈장을 맡아서 가르쳤어요.



김홍도, 서당 (단원풍속도첩)

한양에 세워진 국립 중등학교 사학

서당에서 글을 익히고 나면 국립 중등 교육기관인 사학이나 향교에서 유교경전을 공부했어요. 사학은 한양에 세워진 중등학교로 성균관의 교관들이 직접 수업을 맡아 <소학>과 사서오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열다섯 살이 되면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고 성균관에 입학했어요.



논어



맹자

지방에 세워진 중등학교, 향교

향교는 지방에 세워진 공립 중등학교로 노비나 여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였어요. 각 지방의 중심부에 자리한 향교는 성균관을 본따 대성전, 명륜전, 동재, 서재 등을 갖추었고 백성들에게 유교의 지식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나주향교

지방에 세워진 사립학교, 서원

조선후기에 이르자 성균관이나 향교에는 출세에 급급해 과거 시험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직에서 물러나 지방에 머무르던 유학자들이 후학을 교육하고 학덕이 높은 선현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세웠어요.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라면 서원은 지방 사립 대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수서원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

지금의 국립대학교에 해당하는 성균관은 극 소수의 수재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이 성균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과거지방생들은 우선 소과(작은 과거)라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균관에 들어와 숙식을 하면서 대과(큰과거)를 준비합니다. 조선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과를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선의 과거 중 정기 과거는 3년에 한 번만 치르는데 합격생이 33명에 불과하대요. 또 성균관은 공자를 비롯한 위대한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기도 했어요.



성균관 명륜당

향교의 배치도



공자(孔子)의 위패를 비롯하여 4성(四聖)과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대성전

공자의 제자들과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서무

재방

서재

제기고

제사에 필요한 그릇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공자의 제자들과 현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어요.

동무

향교의 관리 및 유생들의 식사 준비 등 생활 전반을 뒷받침해주는 곳이에요.

교직사

전랑

동재

오늘날의 강의실이에요.

명륜당

일각문

강릉향교



옛날의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

성균관이나 향교의 강당을 ‘명륜당’이라고 하는데, 명륜당은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학교에서는 조선시대의 생활 윤리를 배운 것이지요.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데 양반들이 배운 윤리의 내용은 삼강오륜에 관한 것입니다.



소학(문경새재박물관 소장)



예기(서울교육사료관 소장)



동몽선습



과거 과거시험 답안지(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오륜행실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 부위부강(夫爲婦綱) 을 말하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오륜은

《맹자(孟子)》에 나오는 부자유친(父子有親) · 군신유의(君臣有義) · 부부유별(夫婦有別) · 장유유서(長幼有序) · 봉우유신(朋友有信)의 5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친애(親愛)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합니다.



양사언 楊士彦은 누구일까?



1517년(중종 12)~1584년(선조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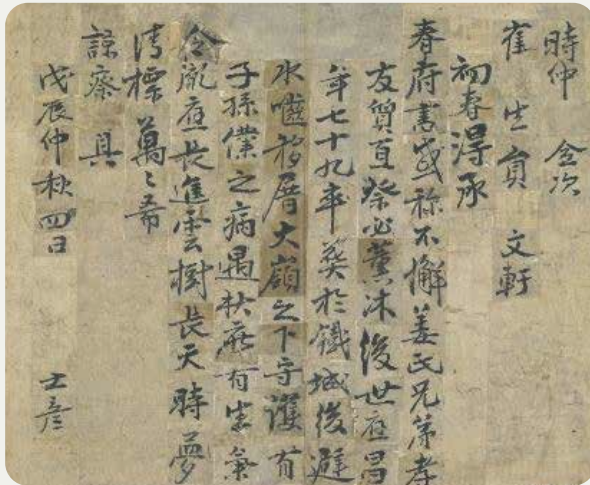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문신·서예가

- 중종 12년(1517)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기지리 출생
- 자는 응빙應聘, 호는 봉래蓬萊, 완구完邱, 창해滄海, 해객海客
- 어릴 적 외숙모 유씨 밑에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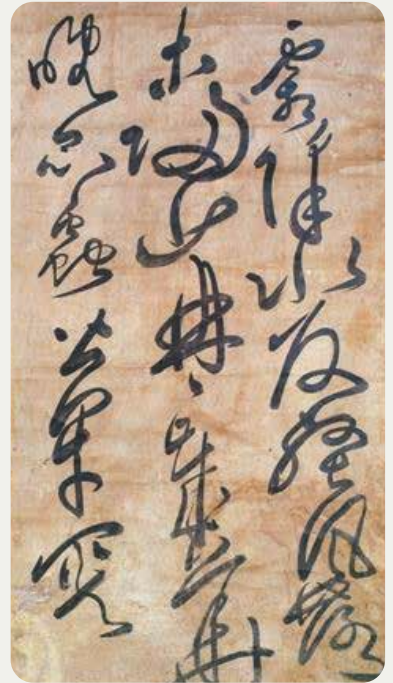
- 24세 : 진사시에 급제, 곧이어 부모상을 당하여 6년 동안 시묘侍墓를 삶
- 30세 : 명종 원년(1546) 무년문과武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 39세 : 명종 10년(1555)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있다가 병으로 사직 후 고향으로 돌아옴. 1556년 대동승에 부임하기 전까지 포천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됨
- 40세 : 명종 11년(1556) 대동승大同丞에 발탁
- 42세 : 명종 13년(1558) 신사헌愼思獻과 정사용鄭士龍의 내통문제에 연루되어 추국 당함
- 44세 : 명종 15년(1560) 평창군수 부임, 1563년 임기 만료되었으나 민원으로 1년간 더 유임
- 48세 : 명종 19년(1564) 성균관 사성司成·종박사정宗簿司正이 되었으며, 이것이 마지막 서울생활이었음
그 해 영동의 고성군 구선봉 아래의 감호鑑湖 곁에 거처를 마련하면서 비래정飛來亭을 짓고 여생을 보낼 곳으로 삼음
- 49세 : 명종 20년(1565) 내직생활을 마감하고 자원하여 외직으로 나감
- 55세 : 선조 4년(1571)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로 강릉부사를 6년간 재임
- 65세 : 선조 14년(1581) 안변부사 재임 시 지릉智陵의 화재사건에 책임을 지고 유배됨
- 68세 : 선조 17년(1584) 유배가 풀려 돌아 오게 될 즈음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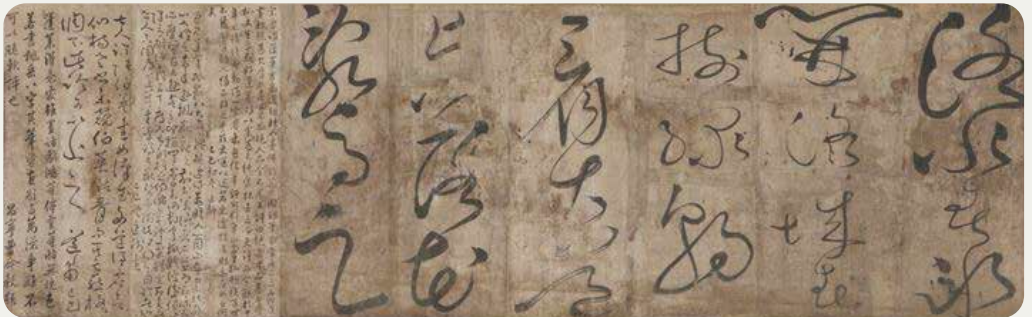
양사언 楊士彦의 작품세계



서간(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오언절구시축(호암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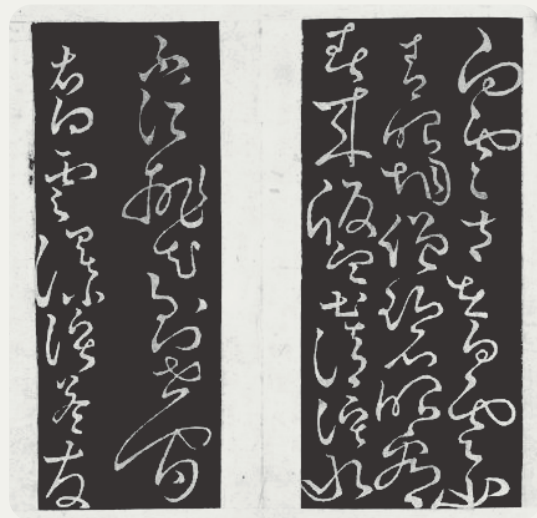
당나라 저광희(儲光羲)의 오언시 '낙양도(落陽道)'의 5수 중 제 1수, 보물 제1624호(서강대소장)



경도瓊島(경기도 포천시 소재)



유묵 '비'



봉래전적 탁본

양사언선생 묘 楊士彦先生 墓



포천시향토유적 제32호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3번지

- 양사언선생 묘 바로 아래쪽에는 그의 부인인 음성박씨(陰城朴氏)와 간성이씨(杆城李氏)의 합장묘가 따로 조성되어 있다.

길명사 吉明祠



포천시향토유적 제45호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75-1

- 양사언을 기리는 사당으로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다.
양사언의 출신 가문인 청주 양씨 후손들과 지역 유림의 주관으로 1991년에 건립하였다.

국민 문학 '시조'

시조는 우리의 선조들이 만든 독특한 정형시입니다. 원래 노래의 가사로서 문학인 동시에 음악이지요. 양반부터 평민까지 모두가 지었던 국민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인시음 (士人詩吟), 강희언, 18세기

시조는 기본 글자수를 지켰어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기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초장: 3/4/3/4글자

중장: 3/4/3/4글자

종장: 3/5/3/4글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뉘만 높다 하더라

내가 지어보는 시조





옛 글씨

전서 篆書

고대 한자에서 발전한 서체예요.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문자 개혁 이전 글씨체는 대전, 문자개혁 이후 글씨체는 소전이에요. 대전체는 모양이 다양하고 변화가 큰 반면, 소전체는 약간 길쭉하면서도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 비석을 세울 때 맨 위 비석의 이름을 전서로 쓰고 있어요. 도장을 팔 때도 전서체로 쓰는데 그래서 도장을 새기는 것을 전각 篆刻 이라고 한답니다.

예서 隸書

전서체가 진나라의 공식적인 서체였다면, 예서는 실용적으로 사용되다가 후한 때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행했어요. 예서체는 가로로 길고 세로는 짧은 직사각형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글워드의 글꼴에도 있어요.

해서 楷書

예서를 정리한 글씨체입니다. 한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체로 각 획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어 읽고 쓰기가 좋아요. 여러 서체들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서예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서체랍니다.



창덕궁 불이문



이인상의 원령첩(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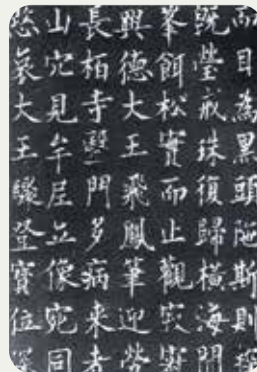
이광사 두보시(호암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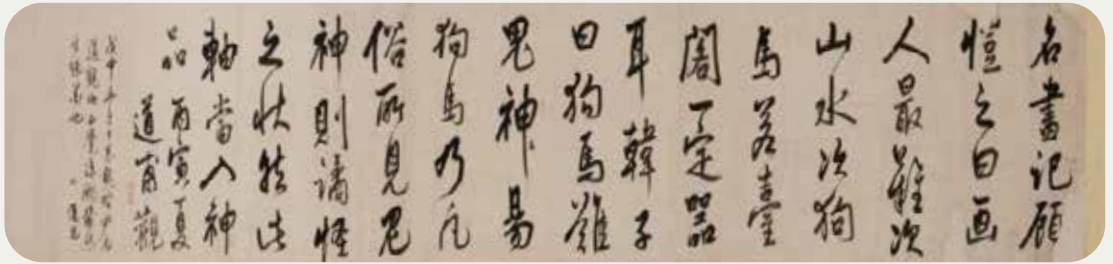
양주 회암사 선각왕사비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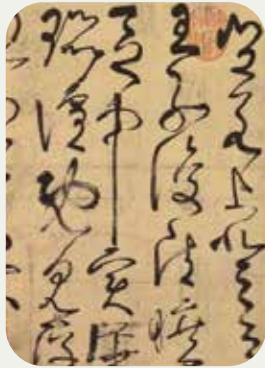
구성궁예천명 부분(구양순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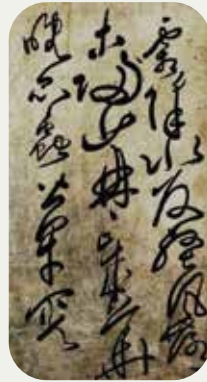
쌍계사 진감선사비탁본(최치원 글씨)



이광사 행서 화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장욱 「고시사첩(古詩四帖)」부분



양사언 「오연절구축」(호암미술관 소장)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어보고 이름을 지어보자!

	갑골문	금문	전서
雨(우)			
水(수)			
明(명)			
鹿(록)			
室(실)			
首(수)			
卿(경)			

예서	해서	행서	초서
雨	雨	雨	雨
水	水	水	水
明	明	明	明
鹿	鹿	鹿	鹿
室	室	室	室
首	首	首	首
郷	郷	郷	郷

출처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선비들이 좋아하는 사군자

사군자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가리키는데,
이 네가지는 선비들이 닮고 싶어 하는 군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시와 글씨와 그림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가장 즐겨 다루는 소재였어요.



매화

눈도 녹지 않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는 우아한 자태와
고상한 절개 **아치고절 雅致高節** 을
상징해요.



난초

곧고 바르게 자라서 그윽한 향기를
내는 난초는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한
성품 **외유내강 外柔內剛** 을 상징해요.

사군자병풍, 강세황(18세기)



국화

가을의 찬 서리 속에서도 곳곳하게 피어나는 국화는 **오상고절 傲霜孤節** 즉, 굴하지 않고 곳곳한 절개를 상징해요.

대나무

부러지더라도 휘어지지 않는 나무로 추위속에서도 고고한 절개와 지조 **세한고절 歲寒孤節** 을 상징해요.



선비들의 벗 문방사우

문방사우는 공부하는 선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네 친구인 종이, 붓, 먹, 벼루 4가지를 말해요. 문방사후 또는 문방사보라고도 해요.



문방사우를 대신하고 있는 지금의 학용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방사우 외의 옛 문방구를 찾아볼까?



지통(紙筒)

주로 편지용의 두루마리 종이를 담아두는 그릇으로 필통보다 너비나 높이 등이 큰 것이 특징이에요.



필통

붓을 꽂아두는 통으로 특히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작은 붓을 필통에 놓아둡니다. 목제의 필통도 많이 제작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백자필통 중 우수한 작품이 많아요.



필가(筆架)

붓을 걸거나 세워 놓는 도구로서, 크고 작은 여러 붓을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좋은 붓을 걸어두고 보며 즐기는 데도 쓰여요.



필갑(筆匣)

붓·먹·벼루 등을 넣어 휴대하는 데 편하게 만든 것으로, 밖에서 글을 지을 일이 있을 때 넣어 가지고 다니던 것이에요.



필낭(筆囊)

붓을 넣어서 차고 다니게 만든 주머니에요.



필세(筆洗)

붓을 사용하고 나서 먹물이나 물감 등이 묻어 있는 붓을 빠는 그릇입니다.



벼루집

벼루·먹·붓·연적(硯滴) 등과 같은 것을 넣어두는 상자로, 작은 것은 벼루만 넣어두게 만들고 큰 것은 연상(硯床)이라 하여 중간에 서랍을 단 책상모양으로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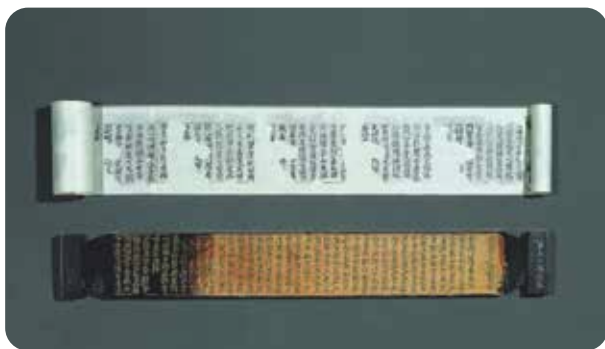
옛날의 인쇄술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나무나 종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똑같이 베껴 쓰는 필사를 통해 책이 널리 배포되었어요.



탁본

글자가 새겨진 비석 위에 종이를 덮고 먹을 묻힌 솜방망이를 두드리면 글자가 새겨진 곳만 빼고 먹이 묻어나요.



목판인쇄

글자가 볼록 튀어나오도록 돌을 새김을 한 목판에 먹을 묻힌 뒤 종이를 대고 밀면 글자가 찍혀요.

탁본은 똑바로! 목판은 거꾸로!



활자인쇄

엽전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주조기술이 발달했어요.
 엽전의 표면에 글자를 새겨야 했기 때문에 금속에 글자를 새기는
 기술이 발달하고 이 기술은 금속활자로 이어졌습니다.



시전지판

시전지는 시나 편지 등을 쓰는 종이를 말하며 시전지판은 시전지에 장식용 무늬를 찍어
 넣기 위해 만든 판을 말해요. 꽃, 길상(吉祥)을 뜻하는 동물, 글씨 등을 무늬로 새기는
 경우가 많지만, 시나 편지를 쓰기 편리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새겨 넣기도 하였어요.
 앞판과 뒷판에 서로 다른 무늬를 새겨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전지판도 있어요.



포천시 소개

포천이란 지명은 조선 태종 13년(1413)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포천시는 삼한시대에 마한(馬韓)에 속하였고, 삼국시대에는 마홀군(馬忽郡)으로 고구려에 속하였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견성군(堅城郡)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인 995년(성종 14)에는 포주군(抱州郡)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현종 때에는 양광도(楊廣道) 양주군(楊州郡)으로 속하다가 조선시대인 1413년(태종 13) 8도제가 실시되면서 포천군이 되었습니다.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포천면 1개 리가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편입되었고 1979년 5월 포천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1983년 2월 연천군 관인면(官仁面) 일원과, 군내의 청산면 4개 리를 신북면(新北面)으로, 청산면 5개 리를 연천군으로 각각 이속, 내촌면 화현출장소가 화현면으로 승격하였습니다.

1989년 1월 관인면 부곡리(釜谷里)를 연천군 연천읍으로 편입하였고 1996년 2월 소흘면(蘇屹面)이 소흘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군에서 시로 승격하였으며, 포천읍은 포천동과 선단동으로 분할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행정구역은 소흘읍과 군내면(郡內面)·내촌면·가산면(加山面)·신북면·창수면·영중면·일동면·이동면·영북면·관인면·화현면, 포천동·선단동으로 1읍 11면 2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천시 CI

산수자명한 자연을 주제로 하고,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융성 발전하는 미래상과 환경 친화적인 우리 고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 가. 상단부의 붉은 색 원형은 태양으로서 진취적인 기상과 밝은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의미합니다.
- 나. 녹색과 군청색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나타내고, 녹색에서 군청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과 물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포천을 상징합니다.
- 다. 하단부의 태극형상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융성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궁무진 포천 (Diversity Pocheon)

'무궁무진 포천'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포천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도시 브랜드입니다. 부드러운 서체의 무궁무진과 견고하고 모던한 서체의 포천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시각적 분절과 리듬감을 부여한 디자인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된 뫼비우스 띠는 포천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띠에 사용된 파란색과 녹색은 포천시 마크의 칼라를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적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주황색은 포천의 역동적 발전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 오성과 한음

오성(이항복)은 가산면에 묘소와 산도비가 있고, 화산서원에서 제향되고 있으며, 한음(이덕형)은 포천읍 자작리에서 출생하여 신북면 소재 용연서원에서 제향되고있는 우리 시의 명현으로서 맑고 큰 눈을 가지고 재치가 넘치는 어린 도령의 모습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켜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천 가는 잎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Herb)

국화과에 속하는 포천 구절초는 포천에서 처음 발견된 명명된 포천 고유의 식물로 속명은 '포천 가는잎 구절초'며 한탄강 주변과 운악산 등지에서 볼 수 있지만 자생지가 제한되어 있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 자생지 보호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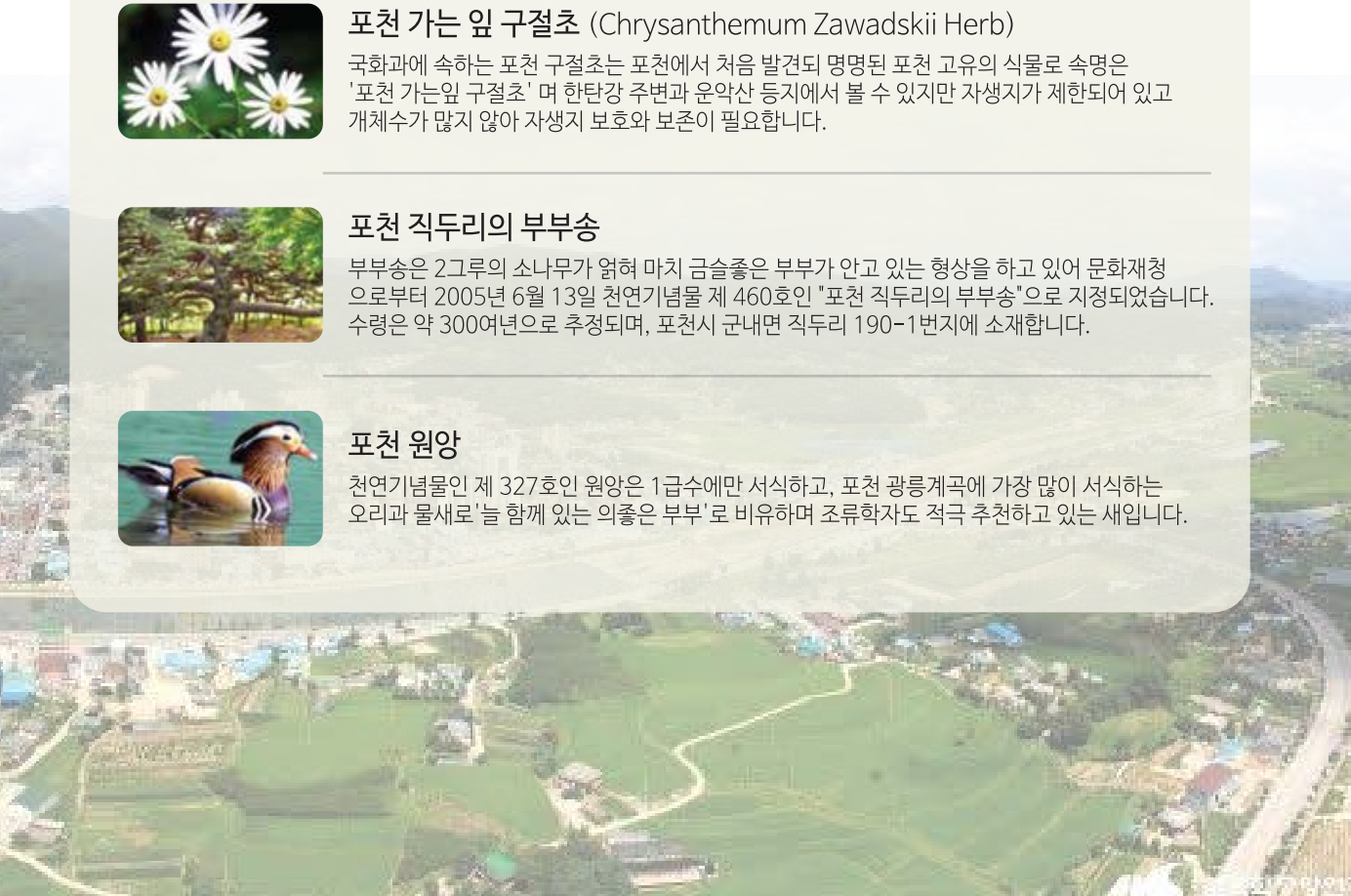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

부부송은 2그루의 소나무가 얽혀 마치 금슬좋은 부부가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천연기념물 제 460호인 "포천 직두리의 부부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령은 약 300여년으로 추정되며,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90-1번지에 소재합니다.



포천 원앙

천연기념물인 제 327호인 원앙은 1급수에만 서식하고, 포천 광릉계곡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오리과 물새로 '늘 함께 있는 의좋은 부부'로 비유하며 조류학자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새입니다.





포천향교 소개



포천향교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6호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176

고려 명종 3년(1173) 창건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시 소실

조선 선조 27년(1594) 중건

1950년 6.25 전쟁 시 일부 파괴

1962년 교궁 중수

1984년 대성전, 명륜당 해체 보수

1988년 담장 보수

1996년 주차장 설치 및 담장 보수



포천향교에서 하는 일

■ 전통문화사업

- 성년의 날 행사
- 전통 혼례
- 기로경노년

■ 교육사업

- 한시, 한문, 서예, 다도
- 청소년 인성교육



2015년 살아 숨쉬는 향교 · 서원만들기 사업

포천향교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명필**을 찾아서

- 지은이 : 이 선 주
- 편 집 : 심 수 정
- 펴낸이 : 조 관 휴
- 발행일 : 2015년 7월
- 발행처 : (주) 대성문화사
- 문 의 : 02.722.5820
- 기 획 : (주) 문화나눔연구원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할 경우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목적에 의한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천향교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명필을 찾아서